

“견습인턴 총리에 특임총리 앉혀 놓은 것”

야권 ‘김태호·이재오 때리기’ 본격 나서 인사청문특위 배치 공격수 선정 착수

김태호 국무총리 발탁 및 친정체제 구축으로 특징 되는 8·8 개각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최악의 개각’으로 단정짓고 ‘김태호·이재오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와 이 특임장관 내정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세대교체의 신호로 견습인턴 총리에 특임총리를 앉혀 놓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총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 장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나아가 “간판은 대통령·총리·국회의장·한나라당 대표가 전부 영남이고, 권력은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이 다 영남에,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수석과 비서관 중 40%가 영남”이라며 “대한민국이 ‘영남민국’ 아닌가 착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오전 원을 방송 인터뷰에서 “8·8 개각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친이(親李)체제의 구축”이라며 “천안함 사태 대응 잘못 등 남북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장관과 4대 강 책임자, 망인 장관 등을 교체하지 않는 이번 개각은 세대교체의 탈을 쓴 이명박 친위부대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더니 측근을 전면으로 배치한 친위 부대 내각, 간판과 권력 모든 것을 영남출신으로 채운 지역관중 내각”이라며 “이번 개각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현정사상 최악의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이 의원의 지난 7월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집중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청년실업난과 관련, “한쪽에선 일손이 남아돌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모자라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대졸이든 고졸이든 취업 인력을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입사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수생들을 없애야 한다”며 “우선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1.2년 일하고, 그 성적을 갖고 대학 가라 이겨야”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을 아무렇지 않은 듯 쏟아내는 것은 이 내정자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 의원은 장관 취임 전에 산간벽지 오지로 가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이 같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준비를 위해 10일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하고 총리 인사청문특위에 배치할 공격수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총리 후보에 대해선 ‘박연차 게이트’ 및 S조선사와 관련한 의혹을, 이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7·28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개각을 적극 옹호

하면서 야당의 공격 차단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부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인 입각, 실무형 장관 발탁으로 친서민 정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김태호 인턴총리’ 공세에 맞서 “김 총리 후보는 검증된 행정력과 정치적 감각으로 젊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도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의·이귀남 유임, 이재훈 발탁 왜

지난 8일 개각에서 당초 교체 예정이었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한 조정자 역할보다는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무마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

말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취임 1년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교체 대상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개각 막판, 교체설도 제기됐지만 그동안 별다른 대과가 없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한데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상징성과 내각의 출신 지역 안배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깜짝 카드’였다. 이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개각 당일까지

이만의 ‘4대강 살리기’ 앞장 이귀남 내각 출신 지역 안배 이재훈 전문·정치경험 작용

공세에 소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옹호 입장을 피력하는 등 ‘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영산강 유역 환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애항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 개각을 앞두고 ‘총성발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이만의 장관이 취임 2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교체 대상이었지만 4대강 사업 등 당면 현안을 잘 관리했다는 점에서 유임된 것 같다”며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와 지역 안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최경환 장관 유임에 무게가 실리며, 김영학 제2차관을 비롯해 지경부의 상당수 간부들이 미뤄둔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이 내정자 발탁 배경은 산업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한나라당에서 쌓은 정치적 경험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산업 선진화 전략,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산업기술 혁신시스템 등 산자부가 내놓았던 굵직한 정책들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또한, 지난해 4.29재보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인천 부평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쏠다 10월 3일 또는 10일로 연기

김동철 “전대 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설문 결정”

내달 치러질 예정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10월 3일이나 같은 달 10일로 연기됐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 선출 방법 등 전대 료과 관련,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9일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비대위 브리핑을 통해 “당초 내달 18일 치르기로 했던 전당대회는 추석 연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의 대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10월3일 인 천 문화경기장이나 같은 달 1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치

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비대위와 전준위가 협의해 최종 개최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 비대위원들과 상근 당직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소속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선출 방법 등과 관련,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부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대표 선출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출 방법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면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설문조사 전에 전당대회 료과 관련, 2차례 정도 토론회를 개최, 쟁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는 설문조사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에 김영록 의원을, 수석부대변인에 이규의 부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전 대표, 이대통령 만날 필요 있나”

친박계 개각 불만 고조

8·8 개각에 대한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김태호 총리=박근혜 대항마’라는 지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8·15 이후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자 회동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8·8 개각이 당내 화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친박계의 현기환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친이(친이명박)계 대표로서의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건전한 경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주류)가 문

치면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도 바뀔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함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항마’론에 대해 “반(反)박 전 대표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박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김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친박계 한 핵심인물은 “김태호·이재오 카드는 결국 박 전 대표가 대권을 향해 가는 것은 죽어도 막았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이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엄중할 만큼, 대통령을 만나 웃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 받아 들여야”

김총리 후보자 첫 출근 청문회 준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 내정 하루만인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 있는 창성동 별관으로 첫 출근,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웃는 모습으로 출근,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고생이 많다”고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는 또 “서로 단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를 알고 있다”며 “이제 야당도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야당도 과거와 달리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정 고

급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한 뒤 국회 청문회와 관련, “오늘부터 국정 현안을 확실하게 챙겨서 국민이 청문회를 통해 현안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여 3층 사무실로 옮긴 김 후보자는 박근혜 총리, 조원동 사무차장, 육동한 국정운영1실장, 김유환 정무실장, 김창영 공보실장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지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문의처	☎ 062)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지도 못한다면 즉 “나” 놓고 “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풍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명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타연차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8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 조선대 등록 - 8월2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 부터 -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정확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방부지정 장교격인보도교육기관/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한자·한문의 올바른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남·녀·노·소(한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이상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강료: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현황: 각 과정별 25명

■ 접수처: 광주시 서구 동성동 633-28(간암리체육부근)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교육과정: 중·고급연수과정과 동일한 교재로 명강의를 합니다.

과정명	교육과목	개강/연수기간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반)	· 부수해설, 사지소학 · 1,800지(상음한자)자음풀이	토요일:9월1일 14:00~18:00 화요일:9월7일 14:00~18:00 / 2010년 9월 4일~ 2011년 2월 11일(24주)
	· 중학교교과서 단문/ 신문/한문법 지도법 ·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금요일:9월3일 09:00~13:00 / 2010년 9월 3일~ 2011년 2월 11일(24주)
제 8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 추구법·명심보감 · 중·고교 한문교과서 단문/ 신문/한문법 해설 ·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금요일:9월3일 09:00~13:00 / 2010년 9월 3일~ 2011년 2월 11일(24주)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 소학·대학 · 격몽요결·중용	14:00~18:00 / 2010년 9월 3일~ 2011년 2월 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감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구청·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감사
- 한문학회 개원 및 한자·한문지도사 감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 광주시교육청학무수업지원센터·한문학무수업지원센터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e-mail: hanja-exam@hanmail.net / FAX: 062)366-9779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2010. 8. 30(월) 09:00 야간반:2010. 8. 30(월) 18:00	·금요일 오전반:2010. 9. 3(금) 09:10 ·토요일 오전반: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주·야간반 기초전급생	·기초반:금·토요일 각 30명 ·심화반:금·토요일 기초전급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 300,000 ·광주은행:074-107-004114 (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148-107-307803 (예금주: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A) 한국교육진흥회 평생교육진흥회 회장 발령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진흥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문의처	☎ 062)530-3873-5 지도교수: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ie.nju.ac.kr	☎ 062)950-3582-4 지도교수: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